

# 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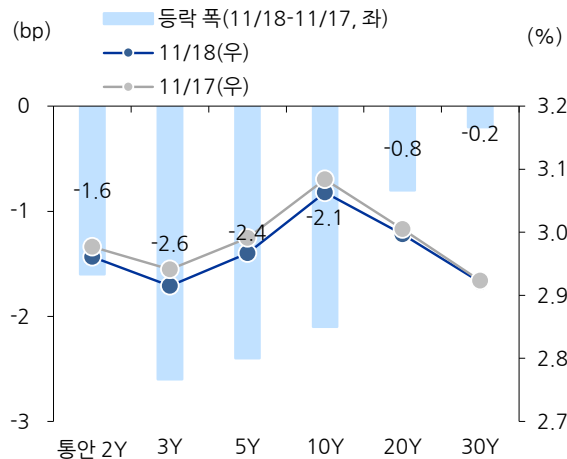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\_02)368-6149\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\_02)368-6176\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\_02)368-6177\_dbwogur170@eugenefn.com

## 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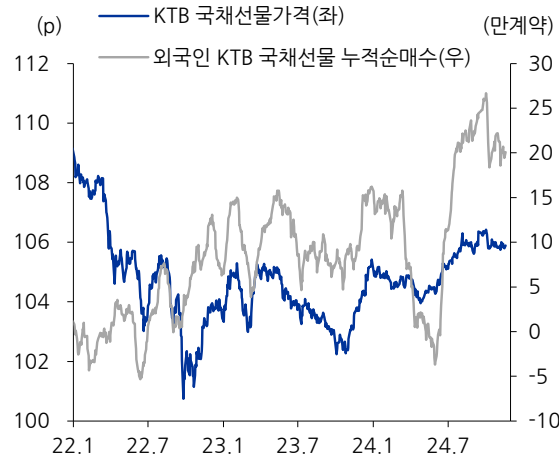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11/1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15%	-2.6	1.4	-23.9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63%	-2.1	2.5	-12.0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4.8	14.3	13.7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9	9.0	-5.0	47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54	21.0	-26.0	104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80%	-2.5	2.5	3.0
	미국채 10년물	4.415%	-2.5	11.0	53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3.5	13.5	5.1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371%	2.0	4.8	36.7
	호주국채 10년물	4.603%	-4.1	2.3	64.8

## 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##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## 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전일 미 소비 호조 및 연준 매파 발언에도 저가매수 유입에 강세 보인 미국채 흐름 연동. 원달러 환율, 장 중 정책 당국 경계 속 반락하며 가격 지지
- 외국인, 국채선물 순매수하며 금리 하락 견인. 내주 금통위 경계, 뚜렷한 시장 모멘텀 부재로 강세폭은 제한

##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##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10년 금리, 장 중 4.5%선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으나 과매도 인식에 따른 반발매수세 유입으로 반락. NAHB 주택시장지수 호조로 금리 낙폭은 제한됨
- 지정학 긴장 고조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한 점도 부담.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해제했다는 소식 확산
- 금일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, 유로존 10월 CPI 등 발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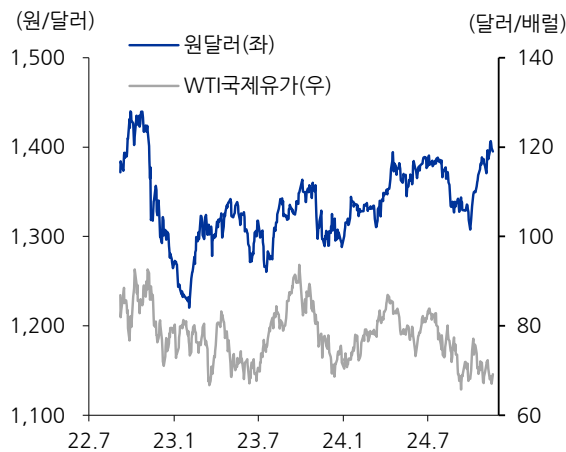


## 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1/18일	1D	1W	YTD
원/달러	1,395.20	-0.3%	0.0%	8.3%
달러지수	106.24	-0.5%	0.7%	4.9%
달러/유로	1.059	0.6%	-0.6%	-4.1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23	-0.1%	0.0%	1.5%
엔/달러	154.59	0.2%	0.6%	9.8%
달러/파운드	1.268	0.6%	-1.5%	-0.4%
헤알/달러	5.75	-0.8%	-0.1%	18.5%
WTI 근월물(\$)	69.16	3.2%	1.6%	-3.5%
금 현물(\$)	2,610.39	1.9%	-0.4%	26.5%
구리 3개월물(\$)	9,094.50	1.0%	-2.5%	6.3%

##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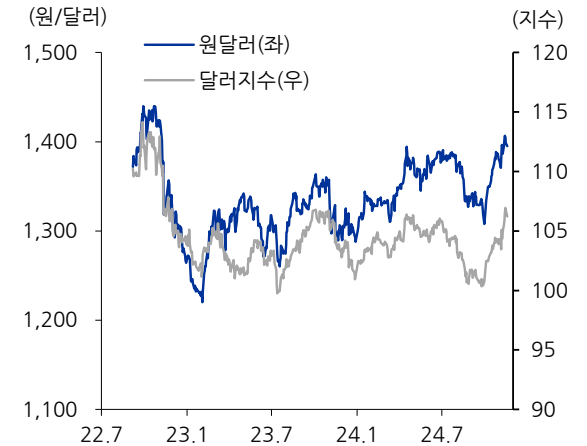
##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## 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3.60원 하락한 1,395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93.5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차익 실현 속에 소폭 되돌림을 보였고, 국내증시 급등 속 원화도 모처럼 강세. 삼성전자의 자사 주 소각 소식에 기타 대형주들도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.
- 달러-원은 오전 중 국내 증시 강세와 우에다 BOJ 총재 연설 대기 속 1,38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, 예상보다 도비쉬했던 우에다 총재 발언과 저가 매수 속 낙폭 축소.

##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##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정되면서 하락.
- 전일 별다른 이벤트는 부재했던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열기가 진정되는 흐름 나타남. 미국채 수익률은 4.5%를 돌파하지 못하고 반락했고, 달러도 이에 연동.
- 달러-엔은 우에다 총재의 도비쉬한 발언에도 상승세 제한. 우에다 총재는 향후 완화정도 조정 시기는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며 구체적인 인상 시점 힌트를 주지 않아 12월 인상 가능성 낮아짐.
- 국제유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소식과 북해 유전의 생산 차질 소식에 급등.